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유년부**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오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2월 교육 내용	04
☼ 2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2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2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 2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52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53
☼ 위드 포토	54
☼ 2월 추천도서	56
☼ 2월 교육활동지	57
☼ 2월 위드스티커	59

2월 교육내용 선물을 받았나요?



암송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첫째주♥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둘째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8)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셋째주♥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예요.

♥넷째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31)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실천 내용

1.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기
2. 예수님을 내 마음 속 최고의 자리에 모시기로 다짐하기

우드



2월 첫째주
2016년 2월 7일~13일



Memory Time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첫째주

- ♥ 주제 : 선물을 받았나요?
- ♥ 암송구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 ♥ 성경 이야기 :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6:23, 에베소서 2:8
- ♥ 오늘의 포인트 :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다음 중 천국을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 ① 노력해서 얻는 것
 - ②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
 - ③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 ② 다음 말씀의 빈 칸을 채워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라” (에베소서 2:8)

★ 교육활동 - “천국 선물상자 만들기”

친구들이 만든 천국 선물상자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주며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Sweet Time

가족과 함께하는



-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 암송구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 ♥ 오늘의 포인트 :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6:23, 에베소서 2:8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천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Q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Pray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요.

누가복음 21:7-11 “마지막 때의 징조”

7.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9.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10.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11.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읽고 빈 칸을 채우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다’ 하거나,

‘ 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 삶 속으로 ★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물었어요. 그리고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고 질문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전쟁이 일어나며,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퍼지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예수님, 또는 구원자라고 하며 속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기억해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해요. 나를 미혹하는 어떤 이야기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12-19 “**믿음과 인내로 얻는 구원**”

12.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13.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14.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15.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16.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17.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지켜 주실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	--	--	--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 삶 속으로 ★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이웃들에 의해 잡혀가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할 것이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라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미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나요? 그러한 일로 인해 오는 시험을 잘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예요.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예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웃음이나 미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 그 날에는,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24.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못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25.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26.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27. 그 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8.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 말씀 속으로 ★

1. 마지막 그 날,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음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려보세요. (27절)
“그 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 삶 속으로 ★

마지막 심판의 날은 어떤 것 같나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난도 힘듦도 견뎌낸 사람들은 그 날에 구원 받을 것이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기도해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항상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덮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35.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36.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37.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38.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나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 ① 방탕하게 술 취하며 살아라.
 - ②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살아라.
 - ③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 삶 속으로 ★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 즉 마지막 때인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연 재해를 겪는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날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매일매일 기도하며 깨어 있는 어린이가 되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3:16



우드



2월 둘째주
2016년 2월 14일~20일



Memory Time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둘째주

- ♥ 주제 : 선물을 받았나요?
- ♥ 암송구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8
- ♥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로마서 3:23, 하박국 1:13, 요한일서 4:8
-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예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을 찾아서 빈 칸을 채우고 함께 읽어보세요.

하박국 1:13 “주께서는 눈이 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② 요한일서 4:8 “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이심이라”

★ 교육활동 -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 ▣ 부록에 수록된 활동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보고 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 주제 : 선물을 받았나요?
- ♥ 암송구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8
-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로마서 3:23, 하박국 1:13, 요한일서 4:8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면에서 언제나 변함이 없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계신 곳에서 죄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죄를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받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해요.



Q 1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Pray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은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요.

날짜 : 2016년 월 일
부모님 확인 :



1.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2.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3.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4.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5.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6.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 말씀 속으로 ★

1. 열 두 제자 중에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3절)

이라는



★ 삶 속으로 ★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리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궁리한 끝에 정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한 것이었어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속하게 했어요.

사탄은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그것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했던 제자인 유다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나에게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제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7-13 “마지막 만찬을 준비함”

7.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8.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9.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1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11.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12.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13.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나요? (8절)



★ 삶 속으로 ★

유월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의 하나로 '넘어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출 12:27).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리신 재앙 중에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리시고, 애굽 백성의 장자는 죽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기억하며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제 문에 바른 양의 피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하루가 되길 바라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 <보혈을 지나>



누가복음 22:14-20 “성만찬”

14.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1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17.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1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19.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20.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 말씀 속으로 ★

1. 말씀을 보고 서로 맞는 것끼리 줄을 이어보세요. (19-20절)



· 예수님의 몸



·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 삶 속으로 ★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모든 사실을 나누고 싶으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식사 만찬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이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다 내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24-30 “제자들의 다툼”

- 24.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못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 26.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 27.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 28.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 29.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 30.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사람으로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27절)

스 거 나 스 리

★ 삶 속으로 ★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곧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높으냐를 놓고 다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높아지실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였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길 바라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가진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3:16



우드



2월 셋째주
2016년 2월 21일~27일



Memory Time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셋째주

♥ 주제 : 선물을 받았나요?

♥ 암송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3:16

♥ 성경 이야기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 요한복음 3:16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예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빈 칸을 채우고 함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사

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17)

★ 교육활동 - “왕관 만들기”

친구들이 만든 멋진 왕관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라요.

Sweet Time

가족과 함께하는



♥ 주제 : 선물을 받았나요?

♥ 암송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요한복음 3:16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라요.



Q 1 ‘예수님’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나누어 보세요.

Pray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가장 귀하게 모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요.





누가복음 22:31-34

“베드로의 연약함”

31.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32.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33.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34.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 말씀 속으로 ★

1. 베드로는 예수님께 감옥에도, 죽는 자리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말씀을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34절)

“베드로야, 내가 네가 말한다.

오늘 이 옮기 전에,
네가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 삶 속으로 ★

제자들 중에 가장 훌륭한 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그 어떤 제자도 따라잡을 수 없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함께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가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척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베드로처럼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무엇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저희 부족함, 연약함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35-38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패”

3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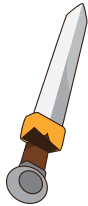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3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 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게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38.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지라고 명하셨던 것은 무엇, 무엇이었나요?
다음 중 골라보세요. (36절)



★ 삶 속으로 ★

제자라면 선생님이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제자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때로 여김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 주셨듯이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헌신을 보여야 할 때가 온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어떤가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때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는 예수님을 모른 척 하진 않나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따라갈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39-42 “예수님의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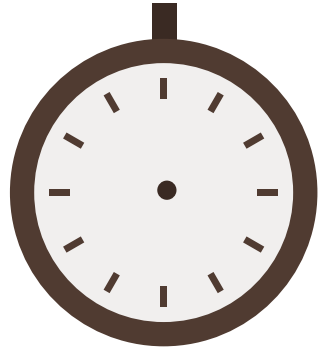
- 39.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 40. 그 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 41.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땅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 42.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께서서는 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히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해요.
친구들이 기도할 시간을 표시해서 기도하겠다고 다짐해 보아요.

“저 _____ 는 _____ 시 _____ 분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 삶 속으로 ★

예수님은 매일 매일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실 수 있으셨던 큰 힘 되었어요.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아요. 온라인 게임을 하는 습관, TV 앞에 장시간 앉아 시청하는 습관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습관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에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이끌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오늘도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큐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47-51 “이것까지 참으라”

47.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4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49.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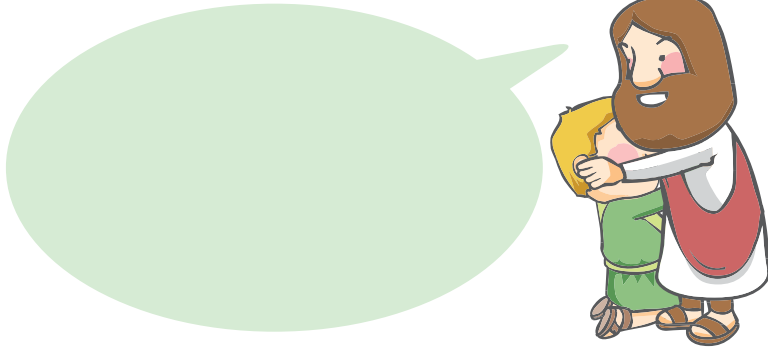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50.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51.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에게 화가 난 제자 중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예수님께서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셨나요? (51절)



★ 삶 속으로 ★

기도의 능력은 칼을 가지고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잡으러 온 군사까지도 용서하고 참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잡으러 오는 군사들에게 잡혀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였지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칼을 휘두르는 일 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잘 참고 견뎌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것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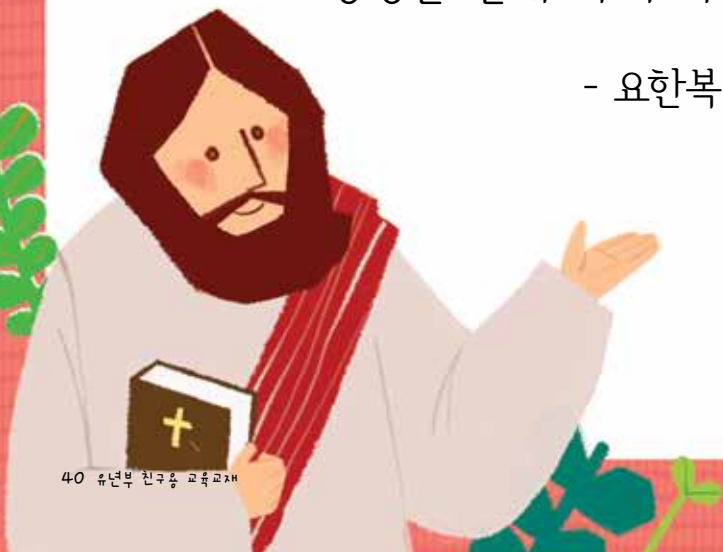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여러 삶의 장소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미운 친구들, 나를 화나게 하는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3:16



월드



2월 넷째주
2016년 2월 28일~3월 5일



Memory Time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넷째주

♥ 주제 : 선물을 받았나요?

♥ 암송구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 ▷사도행전 16:31

♥ 성경이야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31, 로마서 10:9, 요한계시록 3:20

♥ 오늘의 포인트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 교육활동 “믿음 팔찌 만들기”

- 믿음 팔찌를 만들어보면서 한달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다짐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선물을 받았나요?

♥ 암송구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 ▷사도행전 16:31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 오늘의 성경 이야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31, 로마서 10:9, 요한계시록 3:20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마치 비눗방울처럼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만 잠시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Q 1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일시적(순간적)인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할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Pray 우리 가족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멋진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해요.



누가복음 22:54-62 “베드로의 부인”

54.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쩡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55.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여 앉아 있었다.
56. 그 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뻘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57.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58.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59.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60.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61.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62.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 말씀 속으로 ★

1. 베드로는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나요?

말씀을 읽고 상상한 장면을 그려 보세요. 필요하다면 대사도 써 보세요.



★ 삶 속으로 ★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감옥이라도, 목숨이 위험해지는 곳이라도 따라가겠다고 고백 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말았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닭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어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길은 책망의 눈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일깨워 주시는 격려의 눈빛이었어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에 빠져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죄된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 주의 얼굴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 <나 무엇과도>



누가복음 22:63-71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63.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64.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65.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66.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67.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68.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69.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70.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
71.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 말씀 속으로 ★

1. 사람들에게 희롱당하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69절)

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에
앉게 될 것이요.



★ 삶 속으로 ★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희롱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할 어떤 죄도 없으셨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고통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당당히 밝히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자신의 사명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오늘 온전히 나의 구원을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 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사랑의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던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닮아 저도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1-5

“빌라도의 심문”

1.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2.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3.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에는 아무 죄도 없소."
5.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도: 그릇된 길로 이끌다.

★ 말씀 속으로 ★

1.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죄목은 무엇이었나요?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2절)

- ① 민족을 오도했다.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 ②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
- ③ 제자들을 사랑했다.
- ④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다.



★ 삶 속으로 ★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반역자라고 모함한 것이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다고 선언하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 온 땅의 백성들을 선동하고 다닌다고 죄를 주장하였어요.

진실은 모르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잘 못 없는 예수님을 손가락질 한 사람들처럼 나도 교회나 학교에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친구를 나쁘게 생각하고 손가락질 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손가락질보다는 사랑하며 용서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부 모님과
함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 했어요. 혹시 나도 잘 모르면서 다른 친구들을 판단하거나 손가락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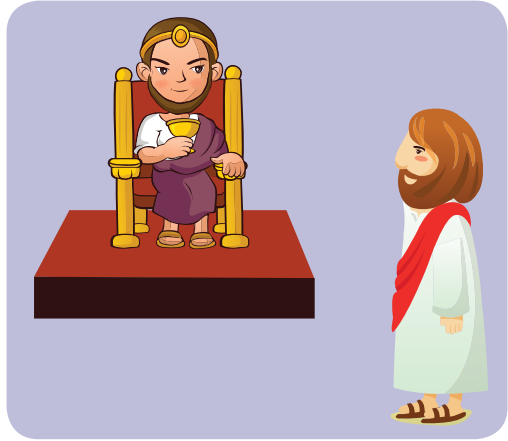


누가복음 23:6-12 “헤롯의 심문”

6.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7.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8.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 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다.
9.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 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0.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11.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 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 말씀 속으로 ★

1. 빌라도는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보냈나요? (7절)



★ 삶 속으로 ★

헤롯은 예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기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헤롯처럼 나도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이거나,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Morning Time

1. 일주일중 하루를 미리 결정하셔서, 친구가 잠에서 깨는 아침에 곁에 계세요
2. 친구를 잠에서 깨우면서 아래의 내용으로 축복과 기도를 해주세요.
3. 가능한 친구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세요.



오늘은 누워있는 친구를 꼭 안아주면서 깨워줍니다.
 친구가 눈을 떴을 때 “잘 잤니~? 우리○○?” 라고 인사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가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가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든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이 언제나 늘 우리 ○○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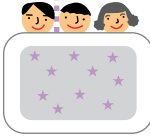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난 후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일어났을 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말해주세요.

bed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일주일 중 하루를 미리 결정하셔서, 친구가 잠을 청하는 시간에 곁에 계세요.
2. 잠을 청하는 친구 곁에서 다음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3. 친구를 안거나, 손을 잡고 기도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친구가 잠자리에 들 준비가 잠자리에 누워 같이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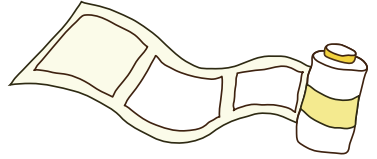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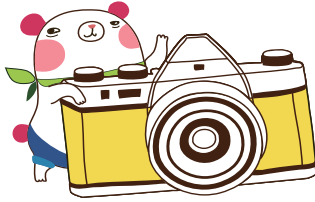
“이번 한 달 동안 가장 기뻐던 일은 무엇이니?
또 가장 화나고 속상했던 일은 무엇이니?”
친구가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부모님도 기쁘고 힘들었던 순간을 친구에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친구가 부모님께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친구와 부모님의 나눔의 시간이 끝난 뒤,
친구를 꼭 안아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세요.

“○○야, 너의 기쁜 순간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매일 같이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니 항상 힘내고 우리가 널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렴.”

이후에 친구가 편안한 마음으로 잘 수 있도록
친구의 기쁜 순간과 어려운 순간을 위해 부모님이 기도로 마무리 해 주세요.

위드 PHOTO



유년1부



찬양1-3 김미소

유년1부



찬양1-3 김태현

유년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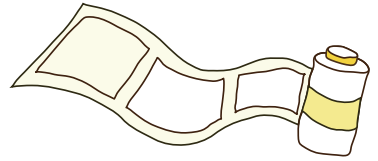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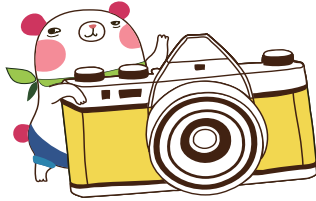
2-2 이준호

유년1부



유년부
친구들
위드 포토
많이
보내주세요

유년부 PHOTO



유년2부

유년2부



2-13 김예나



2-14 양준아

유년2부



2-15 민주은

유년2부

유년부
친구들
워드 포토
많이
보내주세요





2월

제목 : 틀려도 괜찮아

글 : 마키타 신지 / 그림 : 하세가와 토모코

옮긴이 : 유문조

출판 : 토토북



누구나 무엇을 하던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리는 것이 두렵고 친구들이 놀릴까봐 쑥스러워서 생각한 것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죠.

틀리는 것은 나쁜 것도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기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 주는 책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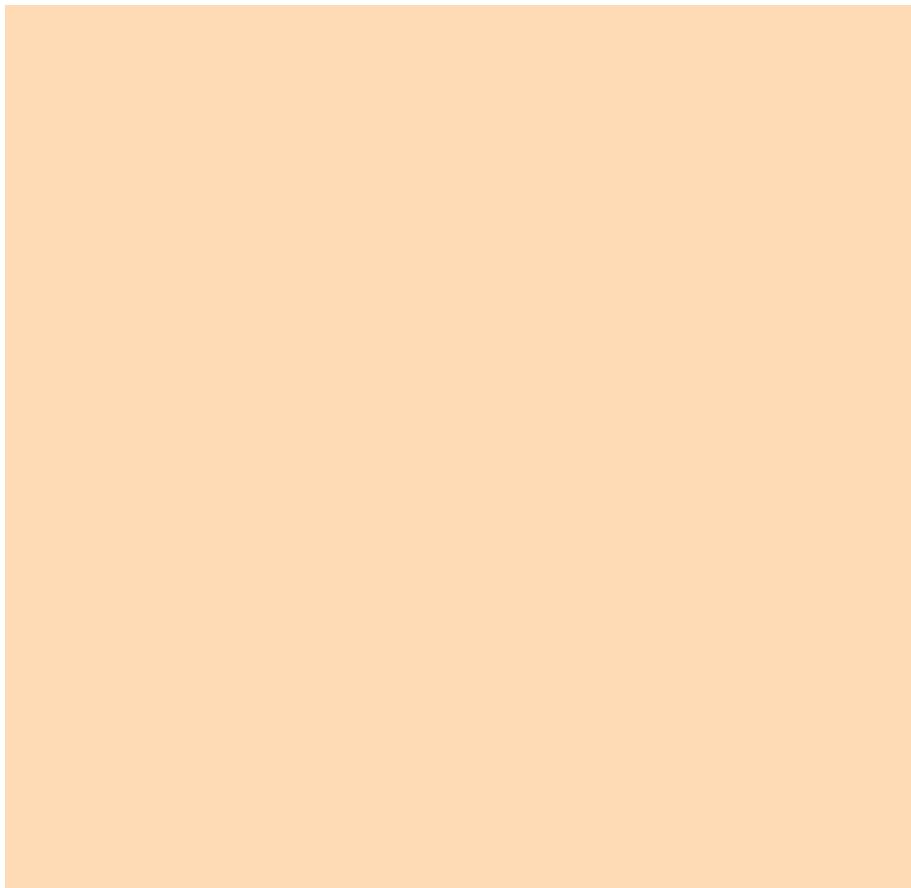
친구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글도 그림도 편하게 나와 있어 우리 친구들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교육활동지

둘째주(2월14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STICKER



Bible study!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2주						
3주						
4주						
5주						

